

미노야마다이묘진과 야시마이나리

야시마지 절 본당 옆에는 붉은 도리이 터널이 이어지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나리 신사의 입구로서 보통 길 양쪽에는 여우 상이 놓입니다. 그러나 이 신사의 입구에는 두 채의 커다란 너구리 상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시고 있는 미노야마다이묘진은 너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다고 믿어져온 이 지역의 전설상의 신입니다. 가정 생활과 결혼, 밤에 하는 장사 등에 효험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너구리는 장난을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미노야마다이묘진은 승려 구카이(774~835)가 야시마의 안갯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미노야마다이묘진은 망토를 입은 노인의 모습으로 구카이의 앞에 나타나 무사히 야시마 꼭대기까지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영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1994)에도 등장한 전설의 너구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폼포코』에서는 도쿄의 교외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변신하는 너구리들이 협력합니다.

미노야마다이묘진의 뒤편에 야시마이나리 신사가 있습니다. 도리이 터널까지 가려면 야시마지 절 참배자가 설치한 소규모의 너구리 상 컬렉션 앞을 지나야만 합니다. 야시마이나리 신사는 깊은 대숲 속에 있어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